

추석엔



이태종
중앙일보 NIE(신문활용교육)팀장
taejong@joongang.co.kr

삼 국시대의 길쌈은 농사와 더불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업종으로 까지 발전해 신라에서는 관영 직조소(피륙 따위를 짜는 곳)를 설치했다. 직조소에선 길쌈을 잘 하는 여직공과 감독모(母)를 두고 베 외에 고급 비단까지 생산했다.

신라 유리왕은 재위 9년 되던 해(서기 32)부터 길쌈을 장려하기 위해 6부의 모든 부녀자들을 두 패로 나눠 내기를 시켰다.

궁중의 왕녀 둘을 뽑아 한 패씩 거느리게 하고 해마다 7월부터 베를 짜게 했다. 그리고 한달 뒤인 8월 보름이 되면 어느 편이 더 많이 짠지를 가렸다.

부녀자들은 두 왕녀의 응원을 받으며 밤을 낮삼아 열심히 베를 짰다. 마침내 심판의 날. 부녀자들이 저마다 마음을 졸이며 짠 베를 들고 내기 장소에 나왔다. 왕과 왕비를 포함해 궁중의 관리들이 모두 둘러선 가운데 심판이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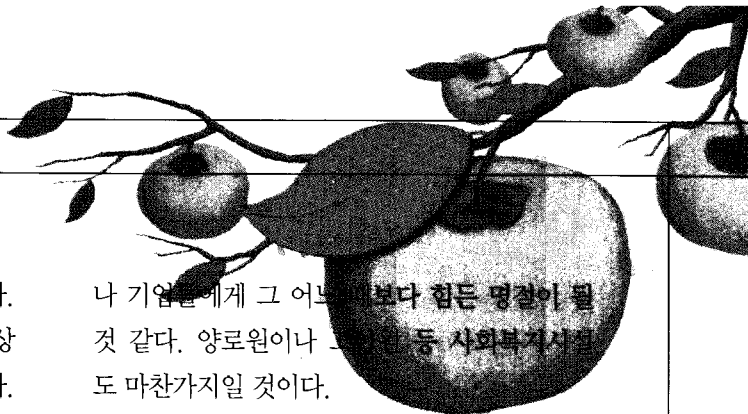
순간 이긴 편에서는 환성을 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진 편에서는 별미 음식을 마련해 이긴 편을 대접했다. 햅쌀로 빚은 송편과 기름에 지진 고기·전 등 갖가지 음식과 밤·대추·머루·다래·배 등 과일을 푸짐하게 마련했다.

승부에 관계 없이 양 편은 동그렇게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며 노래와 춤을 즐겼다. 이 때 진 편이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며 “회소 회소” 하고 탄식하는 음조가 매우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이것이 곧 ‘회소곡’이 되었다.

음식을 먹으며 노래하고 즐기다 밤 9시께 파했다는 이 길쌈축제를 서라벌에서는 ‘가배(嘉俳)’라 일컬었다. 가배는 신라의 큰 명절이 되어 후대에 전해졌는데, 오늘날 추석의 기원이 되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한가운데여서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농경민족이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일년 동안 땀흘려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 거두어 들이는 때이기도 했다.

농경민족의 제일 큰 소원은 풍작이기에 한가위를 기해 신에게 청하고 감사했다. 가장 먼저 수확한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해



조상님께 바치는 천신제로서의 의의도 있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보살펴 준 조상들에 대한 감사제의 성격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돌아보고 웃어른을 찾아 인사를 드리는 풍속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 온 것이다.

한가위는 혈연간의 화목을 확인하고 추원보본(追遠報本·조상의 덕을 추모해 제사를 지내며, 자기의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 떨어져 사는 혈연들이 모여 화목하며 같은 조상의 제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귀성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추석 풍속은 현대에도 의미가 크다. 산업사회가 가족의 분산을 초래했으나 추석은 그 피붙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고, 협동과 화목을 다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박하게 사는 현대인들도 한가위가 되면 정이 솟아 가족과 친척들에게 줄 선물과 조상의 차례상에 올릴 제수감을 사 들고 고향을 찾는다.

어느 외국인은 추석날 조상의 묘소를 둘러보는 행렬을 아름답고 성스러운 광경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올해도 추석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3천만 명이 넘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역시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최악의 경기 불황으로 근로자

나 기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명절이 될 것 같다. 양로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추석 연휴에 있을 외국 관광길 러시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느끼는 서민들을 다시 한번 절망하게 할 수 있다.

추석의 의미는 나눔에 있다고 한다.

“더도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듣고 싶은 말이다. **PPFK**

